광주특공무술중앙회, 2026 광주 대표선발전 개최



전남광주특별시 특공무술 중앙회 마크 사진 /광주 북구청 제공

11월 28일 운암복합체육센터서 광주 대표선발전 개최

12월 12일 전북 익산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선수 선발

전남광주통합 이후 첫 대회…특공무술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가 오는 11월 28일 오전 10시 운암복합체육센터에서 '2026 광주광역시 특공무술 대표선발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을 위한 사전 행사로, 광주 지역 특공무술 대표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대표 선발전은 오는 12월 12일 전북 익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 사무국에서 접수한다.

이번 선발전은 특공무술인들의 화합과 단합을 도모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신술과 자기방어 기술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해 시민들이 스스로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는 광주에서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특공무술 단체로, 체육회 정가맹 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전남광주통합 이후 처음 개최되는 특공무술 대표선발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선발전 개최는 전갑수 광주광역시체육회장의 지원과 노력으로 이뤄졌다. 전 회장은 특공무술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지역 체육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지역 특공무술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특공무술을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회 관련 문의와 참가 신청은 광주광역시체육회 또는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 사무국을 통해 가능하다.

대회 참가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특공무술중앙회 사무국(062-372-97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관 기자

문화담론지 〈창〉 69호 발간… 도시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가

오래된 공간의 역사와 기억, 그 안에 담긴 가치

보존과 개발을 넘어 도시의 미래를 묻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노경수, 이하 재단)이 발행하는 문화담론지 〈창〉 겨울호(통권 69호)가 발간됐다. 이번 호는 「낡음의 값」을 특집으로 구성해 오래된 공간에 축적된 역사와 기억, 공동체의 가치를 조명하고,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되짚었다.

5명의 필자가 각기 다른 시각에서 오래된 공간과 도시의 미래를 조명한 이번 특집은 신웅주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위원은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통해 도시 공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경험과 목소리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천열홍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낡은 것을 버린 이유'에서 광주 동명동의 가로와 필지, 건축물의 변화를 분석하며 도시의 가치가 어떤 기준과 선택에 따라 달라져 왔는지 짚었다.

이어 신아림 건축사는 '새로 짓지 않아도 도시가 바뀔 수 있을까'를 통해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고 새로운 쓰임을 부여하는 도시의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김태원 호남대학교 겸임교수는 '기억이 도시의 자산이 될 때'에서 숭례문 화재와 복구 과정을 돌아보며 문화유산을 잃기 전에 그 가치를 이해하고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용균 국가유산실측설계 기술자는 '낡은 도시가 돈이 되는 법'에서 오래된 공간과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소개했다.

이 밖에도 「우.동.잘.부(우리 동네 작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에서는 이묘숙 편집위원이 광주 예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최재영 작가의 삶과 예술세계를 조명했다. 「맛·잇는·공간」에서는 조정규 전남대학교 강사가 '영산강과 섬진강 유역의 홍어와 가오리 음식문화'를 통해 지역의 맛을 소개하고, 조은양 전 광주비엔날레 VIP도슨트는 '광주비엔날레 시민 해설사 양성과정'을 통해 문화와 사람을 잇는 경험을 전했다. 또한 이현식 편집위원은 '식영정과 소쇄원'을 통해 쉼의 공간을, 조광철 전 광주역사민속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은 '광주역과 철도'가 간직한 기억의 공간을 소개했다. 이번 호의 표지는 최재영 작가의 작품 「Human」(2026)이 장식했다.

'2026 로컬:뿌리다 인문예술테크페스티벌'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로컬 라이브드로잉'을 통해 5·18민주광장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서로 다른 얼굴들이 겹쳐지고 연결된 형상을 통해 인간의 관계와 이해, 공존의 의미를 표현했다.

아울러 재단이 2026년 추진한 역사문화 조사·연구, 시민문화교육, 광주비엔날레 시민참여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의 성과와 활동소식도 수록했다. 노경수 재단 이사장은 "이번 특집은 다섯 개의 질문을 통해 광주와 전남의 골목, 시장, 광장에 담긴 시간과 가치를 새롭게 바라보고자 한다" 며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의미를 되짚고, 앞으로의 도시를 함께 상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 기자



광주 5·18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사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제공

